

KDF

민주주의 리포트

Issue & Review on Democracy

2022년 11월

제78호

SDGs·ESG와 민주주의: 다차원적 민주주의와 실용적 사회혁신 추진력 SDGs·ESG

이 창 언

경주대학교

발행일 2022년 11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문의처 edit@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SDGs·ESG와 민주주의: 다차원적 민주주의와 실용적 사회혁신 추진력 SDGs·ESG

이 창 언

경주대학교 대학원 SDG·ESG 경영학과 교수,
경주대학교 SDGs·ESG 연구센터장,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대학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다.

SDGs를 변화와 혁신, 탐구와 실천의 중시, 다양성과 개방성의 존중이라는 다차원적 민주주의와 사회혁신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SDGs 유용성과 역동성을 검토한다. 특히 SDGs와 ESG 실행의 긍정적 효과를 SDGs의 기본 철학과 가치, 방법론과 전략을 통해 살펴본다. 다차원적 민주주의와 사회혁신, SDGs의 접점에 관한 검토는 SDGs의 사상·이론·방법론적 특징 규명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SDGs·ESG 이행을 위한 민주주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SDGs·ESG 주류화, 현지화, 대중화에 기여한다.

1 들어가며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기본 철학과 가치 지향을 담고 있는 「2030 의제」 서문 첫 번째 단락에서는 SDGs가 “인간,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SDGs는 정책 입안자들이 여러 분야의 목표와 지표를 연결하여 환경-경제-사회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 지표와 도구, 접근법, 시간표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한층 실행 가능하고 총체적인 민주주의 사회혁신 전략이며 행동계획(Strategies and Action Plan)이다.

〈그림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



유엔 소속 국가들이 SDGs를 국가전략으로 수용한 배경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전 세계 지속가능성의 위기이다. 2022년 11월 15일 세계 인구는 80억 명에서 2037년에는 90억 명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빈곤층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봉쇄조치 및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도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 유엔은 2020 SDGs 보고서를 통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간 지속해서 줄었던 국제빈곤선 미만의 인구비율이 2020년 이후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통계청, 2021: 17).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높아졌고 SDGs 이행과 실천에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둘째, 새로운 문제의 대두와 해법의 필요성이다. 21세기는 세계가 직면하는 문제나 과제가 크게 변화했고 이로 인해 SDGs가 합의 채택되었다. MDGs가 채택된 2000년은 빈곤, 기아, HIV/AIDS, 남북문제, 채무 위기, 분쟁, 위생, 물 문제, 문맹 교육의 질과 남녀 격차 등이 주요한 문제나 과제였다. 그러나 SDGs가 채택된 2015년은 빈부격차, 기후 위기, 자연재해, 비만, 생물다양성 상실, 에너지 문제,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주요 문제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SDGs는 인류 공통의 과제에 대해 모든 관계자, 이해관계자가 전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는 풍요로운 세계의 유지 및 발전을 바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탄생했다.

유엔 회원국이 공통으로 체감하는 위기에 대한 인식은 올리히 벡(1998)의 ‘위험사회론’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시각은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의 본질은 인간 그 자체이며, 인간을 형성해 온 근대화에 대한 자기 대결(재귀적 근대화)로 귀결된다. 근대화의 그늘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인류의 위기의식은 SDGs에 관심을 높이고, SDGs는 인간의 사고 전환과 행동을 촉발한다. SDGs의 17개

목표는 2030년을 목표로 한 세계 공통의 성장전략이기 때문에 위기감과 과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기회로서 SDGs의 중요성이 인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합리적인 선택과 관련이 있다. 유엔의 많은 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위기, 지방소멸에 대응해 SDGs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DGs의 확산은 기업, 정부, 도시, 대학 차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과 관련이 있다(이흥연, 2020).¹⁾

한국에서 SDGs 연구와 제도화의 수준은 어떻게? 지난 2015년 SDGs 합의 채택 전후 한국에서는 Post-2015 체제(SDGs)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ODA 관련 연구(보고서)들이 주를 이루었다. 2015년 이후 국내 연구자들은 국가 차원의 SDGs 적용과 모니터링 과정, 지방 SDGs 이행실천 방안,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SDGs 현황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들은 학술논문이지만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논의를 지양하고 지구-국가-도시의 역사와 정보에 입각한 실증적인 연구에 바탕을 두었다. 특히 SDGs 관련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들과 소통하는 방식(세미나, 국제 심포지엄, 순회강연 등)을 통해 생산된 이 연구들은 지식의 단순한 전달이 아닌 지식의 공유를 시도했다. 이 연구들은 SDGs 이행의 수준, 특수성과 보편성, 대안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 학계에서는 SDGs와 민주주의, 사회문제, 지역사회 사회혁신 전략으로서 SDGs의 접점을 규명하고 분석하는 통합적 연구는 2020년 이후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이는 SDGs 전반적인 연구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이 공포(2022년 7월)되었지만 한국의 SDGs 제도화 수준은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²⁾

SDGs 제도화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관련 법의 제정과 정부 차원의 이행체계 구축이 아직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2020: 10-30). 또한, 지속가능발전이 여전히 환경전문가들만의 관심사로 치부되고 있는 점도 SDGs 연구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민주주의를 정치 권력, 절차에 초점을 맞추거나 일국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도구적으로 민주주의를 재구성하고 적용하는 시도,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에 대한 거부감도 SDGs에 대한 학문·실천적 연구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연구자들이 연구와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고 최근 대학이나 학부에서도 SDGs 관련 학과의 설치와 교과과정이 실행되고 있다. 최근 SDGs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SDGs·ESG와 민주주의, 사회혁신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SDGs 17개 목표에 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SDGs·ESG와 민주주의와 사회혁신이 유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SDGs 확산의 기회구조는 이창연(2020b: 127-134)의 논의를 참조하라.

2) 일본의 SDGs 제도화 현황은 이창연(2020d), 이창연(2020e)의 논의를 참고하라.

첫째, SDGs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SDGs는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크게 묶으면서 작성되었다. 그 결과 목표와 세부목표, 지표는 광범위한 선택 품목(menu)으로서 수용될 수는 있지만,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학습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곳부터’라는 관점에서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를 선택하게 되면 기존 정책의 정당화에 머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창언, 2020d). 관성의 정당화 수단으로서 SDGs가 사용된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력과 근본적인 대응을 연기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다(이창언, 2020d).

우리 삶과 분리되지 않는 좋은 민주주의의 긍정적 원리와 SDGs·ESG의 접점을 살펴보는 것은 당대 민주주의와 사회혁신의 사상·이론·방법론적 특징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또한, 협소한 SDGs 연구영역을 보다 확장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와 SDGs·ESG의 접점에 관한 검토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 온 윤리학, 형이상학적 신념들의 의미를 과학적 사고의 틀에 의해 분석되고 증명될 수 있는 용어로 전환함으로써, 삶과 분리되어 온 추상적인 앎을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체화할 실마리를 제공한다(이창언, 2021).

2 다차원적 민주주의와 SDGs

2015년 9월 유엔본부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가 개최되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채택되었다. 동 의제의 핵심이 된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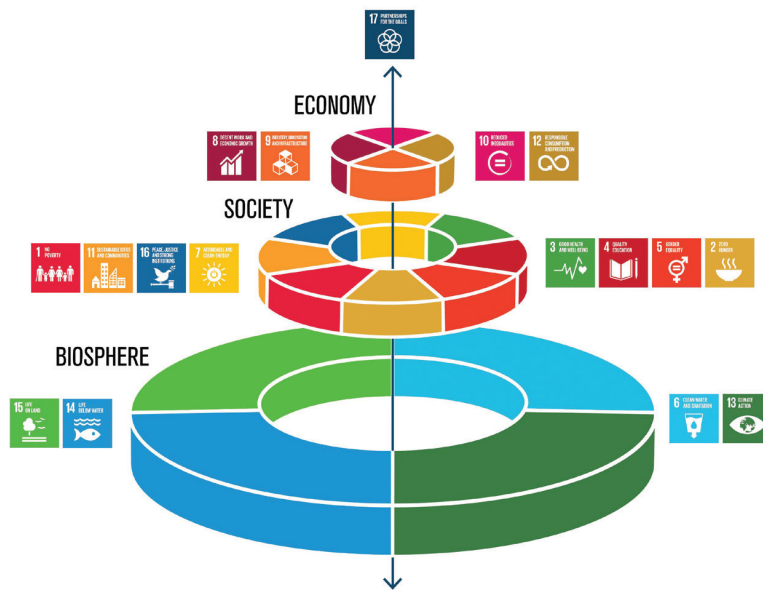
SDGs는 두 개의 국제적인 대응을 받아 채택되었다. 하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책이 지구정상회의(유엔환경개발회의, 1992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2002년), 리우+20(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 2012년)으로 진화함에 따라 이루어진 흐름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협력의 맥락에서 수차례 걸친 개발 협력 10년의 활동 및 유엔 밀레니엄 총회(2000년)를 통해 만들어진 MDGs의 후속 목표로서의 자리매김이다. 유엔은 새로운 의제인 SDGs를 채택하면서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새로운 의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MDGs(새천년 개발목표)와 비교하여 SDGs의 의미를 다차원적 민주주의와 연결시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MDGs 수립과 실행과정에 유엔 사무국이 중심이 되었다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SDGs는 유엔 회원국 중심이라는 점, 규범의 대상도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 다자간 이해관계를 포함하며 장기적 이행평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다. 사실 MDGs의 8개 목표는 사회·경제·환경 기동의

상호 연관성이 모호하여 목표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전략과 정책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SDGs의 17대 목표, 169개 세부목표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사회·경제·생태민주주의와 협의민주주의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SDGs 웨딩 케이크 모델³⁾



둘째, SDGs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호의 3대 분야와 거버넌스 등 총 네 가지 국가-도시 경영을 통합하고 있다. SDGs는 빈곤 퇴치라는 MDGs 기초와 함께 포용성(Inclusiveness), 보편성(Universality), 평등(Equality) 등 새로운 기초가 강조되었다. SDGs는 지구-국가-도시의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이창언, 2016: 284). SDGs는 정치·사회민주주의(사회: 사람 People) 외에도 경제민주주의(경제: 번영 Prosperity), 생태민주주의(환경: 지구 Plant), 평화롭고 공정한 제도(평화, Peace)와 참여와 협력 민주주의(9개 주요 그룹의 참여와 숙의공론장, 협력, Partnership)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목표 이를 이행하고 점검 평가하는 환류의 과정을

3) SDGs 웨딩 케이크 모델은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의 복원력 연구소(Re)silience Institute가 고안한 SDGs의 개념을 나타내는 SDGs 구조 모델이다. SDGs 웨딩 케이크 모델에서 SDGs의 17개 목표는 각각 웨딩 케이크 형태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세 개의 수준으로 구성된다. SDGs 웨딩 케이크 모델은 세 계층 구조로서 상단에는 경제영역, 중단에는 사회영역, 하단에는 환경영역으로 제시된다(이창언, 2022: 174).

포함하고 있다(이창언 2022).⁴⁾

셋째, SDGs는 좋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좋은 민주주의를 고유명사로 도입한 몰리노(Lenardo Morlino, 2004)는 과정, 내용, 그리고 결과를 통해 민주주의의 질과 좋은 민주주의를 평가한 바 있다. 좋은 민주주의는 질이 높은 민주주의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위의 세 가지 기준 외에 법의 지배, 책임성,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반응성, 권리의 존중,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평등의 점진적 실행을 좋은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삼는다(강명세, 2014: 100). SDGs는 국내·국제적 불평등 감소,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및 성평등 달성부터 지속가능한 산업화 추진, 육상과 해양의 생태계 보호, 수자원·에너지 관리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행동, 분쟁지역의 평화 달성 및 세계난민수용 등 광범위한 주제들을 아우르고 있다. SDGs는 지속가능발전(SD)과 민주주의라는 다소 모호한 이념을 가시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전환해 주는 정책수단 또는 프레임워크(policy tool/framework)의 역할을 한다. SDGs는 지속가능한 전체 사회상을 구상하고, 이에 필요한 요건이나 도구(tool),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혁신을 촉진한다.

넷째, SDGs는 모든 국가, 도시가 자국-도시의 경제 및 환경보호, 민주주의 발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과 문화가 다른 만큼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과 전략, 국내 자원의 활용방안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 또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국가 -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군소도서개발도상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등 - 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17대 목표와 세부목표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기업 및 유엔 산하 기구들이 숙의공론장과 협치를 상기하며, 이행과정의 점검에서는 유엔 총회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가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의 중추적인 역할수행을 기대하고 있다(KOICA, 2014: 9).

3 SDGs·ESG의 관계와 유용성

1) SDGs 정책 키워드, 세계관, 접근법

SDGs는 2030년을 향한 국제 지속가능발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동목표 및 세부 목표를

4) SDGs의 17개 목표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처럼 5개의 P축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빈곤과 기아 퇴치, 건강, 교육, 성평등 등 사회발전은 사람으로, 일자리와 경제성장 및 산업화, 불평등 감소의 내용은 번영으로, 모든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등 생태계 보호는 환경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정의를 위한 거버넌스와 제도구축은 평화에 함축되어 있다. 파트너십은 이행수단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촉진을 목표로 한다(이창언·오유석, 2017).

둘러싼 전 세계적인 노력을 결집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SDGs는 지구에서 빈곤을 종식하고, 존엄성 있는 삶과 모두를 위한 기회의 창출, 지속가능발전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창의력과 협동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SDGs의 3대 정책 키워드와 세계관에서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먼저, 3대 정책 키워드는 첫째, 지구 공동의 대응과 로컬 차원의 실천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사고와 행동을 의미하는 지구 규모 <Global scale>이다. 둘째,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을 끌어내는 <back casting>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모습에서 역산하여 현재의 대책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SDGs 전체의 테마이기도 한 ‘아무도 남겨두지 않는다’ <No one will be left behind>이다(이창언 2022).

그리고 SDGs의 세계관은 ‘지구의 한계(planetary boundaries)’를 인정하는 ‘지구 먼저 세계관’ 그리고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라는 인권과 참여 원리에 근거한 ‘사회 포용적인 세계관’, 그리고 바람직한, 지금과는 다른 미래사회를 지향하며 세계의 전환(transforming our world)을 추구하는 ‘전환 세계관’으로 칭한다. SDGs는 이런 세계관과 함께 ‘공유된 책임’을 강조하며 만국, 만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성과 형평성을 요구하는 ‘실천 세계관’을 갖고 있다(佐藤真久, 2020; 이창언, 2022: 253).

SDGs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의제를 형성하고, 선도 기업이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함으로써, 비즈니스가 어떻게 지속가능발전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정부, 기업, 대학과 연계된 지속가능발전의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SDGs와 ESG는 각 그룹의 전략이 각 그룹의 우선순위와 연결되도록 돕는다. SDGs와 ESG는 목표 및 활동을 수립하고, 이끌고, 소통하고, 보고하는 중요한 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나누어 준다.

SDGs를 특징짓는 것으로서 ‘새로운 인권선언’, ‘새로운 사회계약’ 등의 이념이 유엔의 주요 문서 등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SDGs의 채택 문서의 제목인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 구조적인 변화란 사회 전체가 연동되어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SDGs와 ESG는 필연적으로 관련된 모든 섹터의 연계와 협동을 필요로 한다(佐藤真久·関正雄·川北秀人, 2020).

따라서 SDGs 접근법의 특징은 목표 기반의 거버넌스(governance through goals)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장기간 국제사회 협동의 원칙이었던 ‘규칙에 따른 통치’를 넘어서는 시도로서 ‘자율분산·협조형 협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파트너십 또는 거버넌스는 전환(transformation)의 도구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지금까지 채택한 기후위기 대응, 빈곤과 격차의 문제는 SDGs 목표 1과 13에 제시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목표나 세부목표의 대부분과 관련이 깊고 목표의 이행·실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의 공통점은 해결 방법이 임시방편이나 대중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인 사회경제와 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구촌-국가-지역의 SDGs·ESG 이행체계 구축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전략, 도시 파트너십 협의체의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간 협력, 제도화의 요소들과 결합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창연, 2021c).

2) ESG 개념과 기본 관점

최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함께 경제적 이익 창출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은 물론 우리 사회와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이하 ESG)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2006년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 및 유엔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발표하였다. 이때 ESG 투자에 대한 개념이 제시됐다. ESG는 ‘환경’, ‘사회적’, ‘거버넌스’의 약어이다. 자산운용의 세계에서는 매출, 이윤, 현금 흐름과 같은 양적 금융 정보가 주로 투자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지속가능투자연합(GSIA: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는 약 40조 5000억 달러(약 5경 5000억 원)에 이른다. 도이치은행(Deutsche Bank)은 2030년까지 ESG 투자 규모가 130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ESG는 비재무 정보이지만 회사에 투자할 때 회사의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과거에는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 주로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석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이 환경 및 사회문제와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SG 투자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다.

ESG는 기업이 위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다양한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O2 배출을 삭감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개발에 주력하려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노력은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ESG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ESG 투자와 유사한 용어로는 사회적 책임 투자(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가 있다. SRI는 투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여 경제 조건 이외의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를 선택하고 투자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인 개념은 유사하지만, SRI는 윤리를 강조하는 반면 ESG 투자는 사회적, 환경적 이니셔티브와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 이익을 창출한다는 아이디어가 포함된다.

ESG의 세 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환경(E)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산화탄소(CO2) 배출감소,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개선,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의 환경 대책, 재생에너지 사용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의 과제가 포함된다.

둘째, 사회(S)적 과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양질의 노동 조건 및 성평등과 같은 직장 내 인권 조치,

다양성, 일과 삶의 균형, 아동 노동 문제, 지역사회에 공헌 등이다.

셋째, 거버넌스(G)로서 비즈니스 성과 악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패, 위험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기업의 민주적인 조직문화 개선, 노동자와의 협력적 관계 모색,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도 포함된다.

〈그림 3〉 ESG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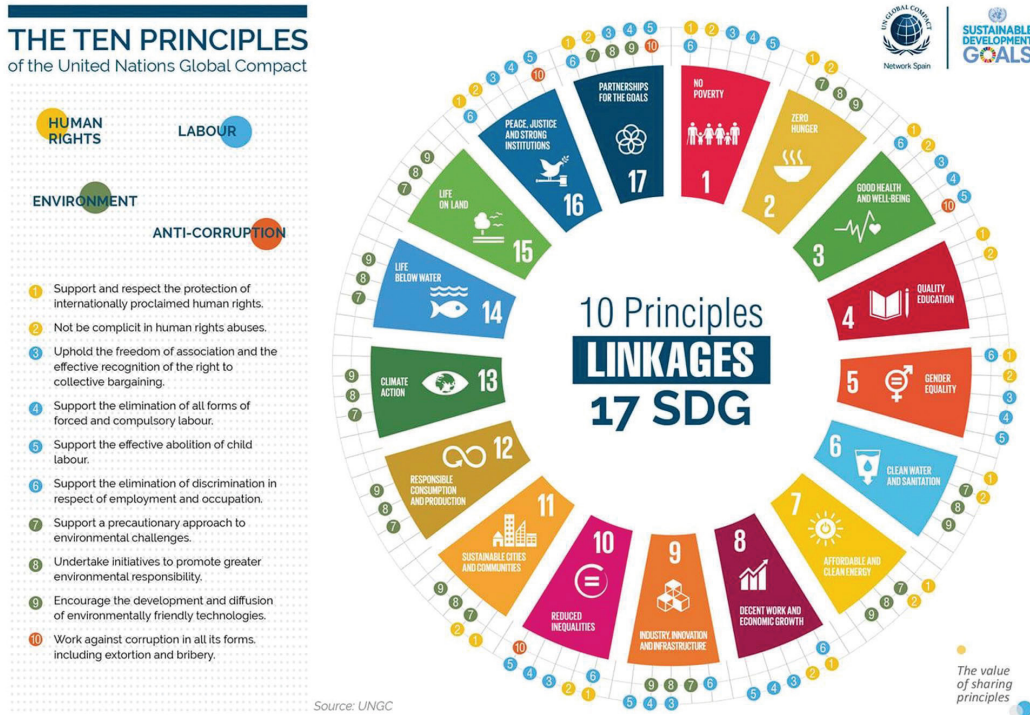
출처: 삼성KPNG 경제연구원(2021: 1; 이창언 2022: 379 재인용)

3) SDGs와 ESG의 관계, 그리고 유용성

ESG와 SDGs는 펀더멘탈(Fundamental, 기업의 고유가치)이라는 차원에서 유사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두 개념은 유사하고 연결된 개념으로 인식되고 동시에 관심을 끌고 있다. SDGs는 2015년 9월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말한다. SDGs는 2001년에 공식화된 MDGs의 후속작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할 17개의 글로벌 목표를 제시한다. SDGs는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국가, 지역 및 기업 목표를 포함한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제시한다.

ESG는 SDGs에 명시된 목표를 경영 전략에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가치 개선 효과를 키운다. ESG는 이해관계자(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주주, 직원, 지역 등)를 고려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ESG에 관심을 기울이고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개발하는 기업 간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SDG의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 기관투자자에게 SDGs와 ESG 과제에 참여하는 것은 투자 위험 관리이자 환경과 사회 전체에 이익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다. 이는 SDGs가 목표로 하는 환경이나 빈곤 문제의 해결, 공정사회 만들기, 기업과 대학의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진다.

〈그림 4〉 유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⁵⁾



SDGs-ESG 경영은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만이 아니라 환경, 건강경영, 지역사회 공헌에 힘쓰는 중소기업 등에서도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SDGs-ESG 경영에 대응함에 따른 자체 기대효과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그것은 첫째, 기업 이미지 향상. 둘째, 급변하는 사회문제. 민주주의와 사회혁신 요구에 대한 대응력 강화. 셋째, 기업의 생존전략. 넷째, 새로운 사업 기회의 창출이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이 SDGs, ESG 경영에 대응하는 장점은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인재 양성과 활성화. 둘째, 거래 안정화와 활성화. 셋째, 자금조달의 용이, 넷째,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SDGs, ESG를 대학 경영과 교육, 대학 특성화, 학생 성장, 산학융합 등에 접목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대학 ESG 위원회와 대학 센터도 설립되고 있다. 경주대학교는 한국 최초의 SDGs·ESG센터를 발족했고 대학원과 학부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이 SDGs·ESG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새로운 대학 연구와 교육에 대한 수요 확보, 대학 내부의 거버넌스 운영과 대학 혁신, 외부 섹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대학 이미지, 새로운 자금 조달

5)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에 관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10대 원칙은 세계적인 협의 과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선언과 협약에서 유래하였다. 이 원칙은 세계 인권선언(1948)/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1998),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199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2003)에 영향을 받았다(이창언, 2022: 250).

접근성 확보를 통한 대학의 자립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이창언, 2022).

하지만 현재 ESG의 통일된 표준 정의는 없다. 국내외 평가지표가 600여 개로 난립하여 평가 조직의 재량에 따라 평가지표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산업통산자원부가 ESG 가이드라인과 ESG 평가지표를 준비하고 있다. SDGs·ESG 경영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SDGs·ESG 홍보, 객관적인 평가지표 개발과 제도개선(특히 중소기업 지원)과 동시에 ESG 워싱(Washing)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이창언, 2021).

4 지구-국가-도시 사회혁신 전략, SDGs·ESG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은 사회적 동학의 진화, 위기, 변동을 분석하는 도구이자 특수한 필요성에 대한 응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방식, 사회변화의 비전(vision)이라 할 수 있다(이창언·김광남, 2015; 이창언, 2020: 203 재인용). SDGs도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인 지속가능한 경제의 구축을 강조하며 개발 과제에 대처하는 정보통신기술, 글로벌 상호연결을 위한 과학, 의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혁신을 추구한다. SDGs는 사회혁신과 동일하게 기술혁신이나 경제적 측면만을 지향하지 않으며, 사회·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지향하며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한다.

사회혁신이 그러하듯이 SDGs도 ‘혁신’의 이니셔티브(initiative), 추진 방식, 프로세스(process)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SDGs는 인간과 자연,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한다. 사회혁신과 SDGs 모두 각 섹터 간 동시 협력과 파트너십을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간주한다. 시장 중심주의적 사고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경제를 불가피하다고 본다면, SDGs는 사회혁신과 마찬가지로 글로벌과 로컬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더 많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선호한다. SDGs는 사회중심성의 관점, 파트너십에 기반한 공동행동에 근거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국가 SDGs 수립은 2030 의제의 원칙을 반영하고 국가 SDGs와 국제관계의 수직적 정합성, 지구적 SDGs 이니셔티브와의 연계성을 검토한 후 이루어진다. 대체로 목표별로 작업반과 주요 그룹별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서 수직적·수평적 정합성 등 다차원적인 통합 검토를 추진한다.

〈표 1〉 사회혁신과 SDGs 비교

	사회혁신	SDGs
개념	• 사회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작동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협력을 창출하는 활동.	• 사람, 지구 및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
출발점	• 충족되지 않는 사회적 욕구,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	• 새천년개발목표가 달성하지 못한 것을 완성(빈곤, 사회발전, 환경, 경제성장, 파트너십 등 5개 영역)
성격	• 사회·환경·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지향하며 사회적 공공선 추구.	• 사람과 지구를 위한 21세기의 새로운 헌장. 상호연계된 3개 기둥(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 관리.
차별성	• 다양한 사회구성원 또는 부문 간의 참여, 연대, 파트너십(partnership) 추구.	• 모든 국가와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 파트너십 정신에 의거한 목표 이행. •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의 국정상황 및 역량을 고려한 이행실천.
과정	• 충족되지 않는 사회적 욕구의 파악 → 새로운 솔루션의 개발 → 효과성에 대한 평가 → 사회혁신으로서 규모 확대.	• 목표·지표체계 구축→지표별 목표치 설정→ 이행전략 수립 • 계획, 실행, 점검 •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과정→ SDGs 의제 설정 과정→ SDGs 실행계획 수립 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
보상과 배분 방식	• 성과나 보상은 개인에 귀속되지 않고 사회 전체, 공동체의 효용 증진.	•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leave no one behind), 어느 곳도 소외되지 않게 (leave no one behind).
결과	• 사회의 새로운 관습이나 루틴(routine) 형성.	• 정치체제, 행정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생산체제, 기술체제, 국제체제의 변화. 의식, 제도, 윤리와 문화의 변화

출처: 필자 재구성(2021)

사회혁신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 전체 혹은 지역사회나 사회의 일정 부문에 확산·재생·모방되며, 궁극적으로 제도화됨으로써 새로운 관습이나 행동을 형성(이창언·김광남, 2015: 35)한다. SDGs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실천, 혹은 사회 행동을 포함한다. 「2030 의제」는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되는 협약상 의정서, 다른 법적 문서 또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된 결과가 특히 감축, 적응, 자원, 기술 개발 이전, 역량 강화와 행동 지원의 투명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SDGs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는 “행위자 수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의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작용, 정보의 교환, 소통을 통한 ‘신뢰’, 그리고 합의 능력의 고양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의 정부(지방정부)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도적 수준에서 참여의 기회와 폭을 확장함으로써 행위자들 간의 질 높은 상호작용을 보장하고 제도 내부와 제도 상호 간의 협력적 조정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높인다(ICLEI, 2018: 29.). SDGs 이행과 실천은 “정치체제, 행정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생산체제, 기술체제, 국제체제의 변화(WCED, 1987; 오수길·한순금, 2018)”를 위한 제도화 모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SDGs는 사회혁신과 동일하게 성과나 보상이 개인에 귀속되지 않고 사회 전체, 공동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우리 모두를 위한 목표(People's Goals)’를 표방하면서 절대 빈곤의 종식, 불평등과 부정의 해소, 기후위기 해결 등을 주요하게 강조한다. 그것은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그 가치가 실제로 새로운 방법의 실행을 견인하며, 그 결과가 이해관계자에게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고르게 주도록 하는 것이다.⁶⁾ SDGs는 정부(지방정부)가 SDGs를 채택하거나 현지화에 따른 인센티브(incentive)를 제시하며, 주어지는 보상은 모두를 위한 효능을 증대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5 나가며

SDGs는 2030년을 향한 국제 지속가능발전의 야심찬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동 목표 및 세부 목표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노력을 결집한다. SDGs는 지구에서 빈곤을 종식하고, 존엄성 있는 삶과 모두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전 세계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SDGs가 다차원적 민주주의, 사회혁신 전략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유용성, 효율성, 특히 실제성을 확보했을 때 가능하다.

SDGs와 ESG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주도의 솔루션과 기술의 개발 및 이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SDGs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의제를 형성하고, 기업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지속가능발전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United Nations, 2015; 이윤선·이태식, 2020). 정부, 기업, 대학과 연관된 지속가능발전의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SDGs와 ESG는 각 섹터의 전략이 국제적, 지역적 각 섹터의 우선순위와 연결되도록 돕는다. 각 섹터는 SDGs를 자기 영역의 전략, 목표 및 활동을 수립하고, 이끌고, 소통하며, 보고하는 중요한 틀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SDG Compass). SDGs 프레임워크는 지구촌과 국가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이보다 작은 도시 수준에서도 효과적인 접근법을 모색한다. SDGs와 ESG는 수평적(도시 기관)-수직적(정부 관할구역과 정부 간 관할구역) 차원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조화를 실행하는 기회와 방법을 제시한다. 그 결과 SDGs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도시는 국제기구, 기업, 언론, 주민, 창업자와 관광객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SDGs가 지속가능한 국가, 도시, 기업의 추진력이자 성공스토리 형성에 유용한 지침이 된 배경에는 첫째, 지속가능성 개념의 모호성이 오히려 다 부문적 참여와 실천의 촉진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 3개 기둥과 ESG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는 3요소의

6) 이클레이(ICLEI(2018: 3)는 지속가능발전이 “단지 현명한선택이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위한 필수적인 접근방식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올바른 발전 방향”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한다.

‘연계성’, 정의·공정·분배 개념의 개념화와 세대 간, 세대 내 ‘형평성’, 보호와 예방의 원칙 준수와 정치·환경·기술적 결정 과정에 대한 ‘신중성’, 물리적 안전과 인권 및 참여적 권한 침해를 고려한 ‘안전성’은 지속가능성의 ‘민주주의적 상상력’을 발휘할 ‘공사장(construction site)’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다학제적인 융복합 지향성, 실사구시에 입각한 생산적인 학습과 실천 사례 탐구는 지속가능발전과 민주주의의 개념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이창언·오수길·유문중·신윤관, 2014).

둘째, 지속가능성을 기본 철학으로 삼은 SDGs와 ESG의 가치와 행동이 모든 사회에서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용적인 이론과 방법, 이행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030 의제가 말하는 이행수단이란 개별 국가의 ‘SDG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의미하며, 의제의 이행수단으로 재원 조달, 능력 배양, 기술 개발 및 이전 등이 해당한다(UN, 2015). ESG의 통합, 새로운 위기 관리, 파트너십 전략도 마찬가지이다.

SDGs와 ESG를 성공 가능성 요소를 내포한 실용적 사회혁신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SDGs 17개 목표, ESG의 3요소와 평가 항목이 일관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집중(focus)되어 있으며, 균형적(balanced)이며 전체적(holistic)이고 측정가능(measurability)하며 보편적(universal)인 적용이 가능한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SDSN HP). 특히 SDGs 목표는 간결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의제, 모든 이해당사자가 행동할 수 있고 적용 가능한 의제로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원칙에 입각한다. 이중 특히 눈여겨볼 SDGs 목표와 세부목표 설정 원칙은 ‘여타의 정부 간 과정과 일치하는 목표’, ‘기존 국제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는 세부목표’ 설정 원칙이다. SDGs와 ESG는 국제-국가-지역의 연계,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통합·관리의 맥락화를 중시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다양한 합의-동원전략을 구사한다(이창언, 2021f).

참고문헌

- 오수길·한순금(201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의 목표체계 전환: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3): 381-508.
- 이창연(2020a), “한국 지방 SDGs 교육의 현황과 과제: 평택지속가능발전대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1(2): 401-416.
- 이창연(2020b), “SDGs를 통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학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보』, 24(2): 123-148.
- 이창연(2020c), “한국 도시 SDGs 이행의 보편성과 지역성: 당진시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고도화와 다부문적 실천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1(3): 1731-1746.
- 이창연(2020d), “일본정부의 SDGs 이행실천 현황과 도전과제”, 『NGO연구』, 13(3): 245-278.
- 이창연(2020e), “SDGs 실시지침을 통해서 본 일본 정부의 SDGs 이행실천과 시사점”, 『인문사회21』, 11(6): 2901-2916.
- 이창연(2020f), 『한국인의 에너지, 실용주의』, 서울: 피어나.
- 이창연(2022), 『SDGs 교과서』, 서울: 선인.
- 이창연·김광남 외(2015), 『열린사회와 21세기』, 서울: KNOUPRESS.
- 이창연·오수길·유문종·신윤관(2014), 『갈등을 넘어 협력 사회로』, 서울: 살림터.
- 이창연·오유석(2017), “Post-2015 체제와 지속 가능 발전: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 차원의 역할과 과제.” 『동향과 전망』, 101: 167-196.
- 이흥연(2020), “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SDGs 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교양학연구』, 12: 257-284.
- 정연경·김태영(2020),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참여과정에서의 사회적 학습: 수원 SDGs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3(1): 1-28.
- 통계청(2021),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서울: 통계청 통계개발원.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2020),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충청남도 당진시: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ICLEI(2018). “The ICLEI Montréal Commitment and Strategic Vision 2018-2024.”
- KOICA(2014). 『개발과 이슈(2014.12)』.
- SDSN(2020), “Accelerating Education for the SDGs in Universities: A guide for universities, colleges, and tertiary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 SDSN·Bertelsmann Stiftung(2018),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ResolutionA/RES/70/1.
- UNESCO(2017), “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earning Objctives.” .
- 杨寿堪·王成兵(2011), 『实用主义在中国』, 中国:首都师范大学出版社.
- 佐藤真久·関正雄·川北秀人(2020), 『SDGs時代のパートナーシップ—成熟したシェア社会における力を持ち寄る協働へ』, 東京都: 学文社.

SDGs·ESG와 민주주의: 다차원적 민주주의와 실용적 사회혁신 추진력 SDGs·ESG

발행일 2022년 11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